

# 건축물의 상징성 풀이한 에세이집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전해자씨가 뽑은 서 현의  
《건축, 음악처럼 듣고  
미술처럼 보다》



“이 책은 건축이라는 언어를 어원부터 철자, 단어, 문장까지 세심하게 설명해주고 있죠. 읽으면서 무릎을 칠 때가 많았습니다. ‘아, 그 건물이 하고 있는 말이 바로 이거였구나’ 하구요.”

전해자씨(41, 다이아몬드 베이스 코리아 CR팀장)는 10여년 동안 카피라이터로 활동하다 지금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하고 있는 전형적인 ‘광고쟁이’다. 그가 “광고인의 관심은 원래 잡다하다”며 서가에서 뽑은 책은 서 현의 《건축, 음악처럼 듣고 미술처럼 보다》(효형출판)다.

“건축물에 대한 따뜻하고 깊은 시선이 책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는 내내 이렇게 온기와 깊이를 지닌 지은이가 어떤 사람인지 강렬한 호기심에 사로잡혀 있었죠.”

이 책은 남산타워, LG 쌍둥이 빌딩, 세종문화회관 등 서울의 건축물을 소재로 한 에세이집인데, 음악과 미술 이야기를 곁들여 건축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돕는다.

“새로운 언어를 배운 느낌이었습니다. 건축이라는 언어를 어원부터 철자, 단어, 문장까지 세심하게 설명해주고 있죠. 읽으면서 ‘아, 그 건물이 하고 있는 말이 바로 이거였구나’ 하며 무릎을 칠 때가 많았습니다.”

그는 지난 해 가을, 후배의 글에서 우연히 이 책을 인용한 문장을 보게 됐다. “느낌이 좋아서” 책을 구해 단숨에 읽기 시작했는데, 책을 읽는 내내 너무 행복했다. 평소 관심이 많던 건축의 세계를 조금씩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건물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 근처에 있는 경동교회는 길가에 있으면서도 옆으로 돌아앉아 있거든요. 전에는 그저 ‘쓸데없이 동선이 길어 불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속세의 때를 벗고, 마음을 깨끗하게 한 후 내게 들어오라’는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대학시절 미술사를 공부하다가 건축사를 처음 접했다. 그에게 건축은 사람으로 치자면, 지성과 감성이 조화된 이상적인 인간형이다. 더욱이 사람에 대한 관심을 기본으로 하는 ‘광고쟁이’에게 건축은 사람이 사는 터전으로서 주요한 관심대상일 수밖에 없다.

“광고카피의 제1수칙은 ‘살아있는 일상의 언어로 말하라’입니다. 그런 점에서 건축은 가장 첨예한 일상의 언어죠. 그리고 좋은 광고카피가 낫익은 것을 새롭게 보게 만드는 것이라면, 이 책은 그 자체가 하나의 멋진 카피입니다.”

그는 ‘선하고 따뜻한, 그러면서 깊이가 있는’ 책을 좋아한다.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울리히 벡 외, 강수영 외, 새물결), 만화책 《사랑의 집(전7권)》(야마모토 오사무, 대원씨아이)도 그런 의미에서 그가 추천하는 책이다. - 김정은 기자

# 아트 북

세상에 단 하나 뿐인 당신의 책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 뿐인 책...  
소장하고 싶은 책이나  
각별하게 생각하는 작품집, 개인의 기록서도  
다음에서는 반갑고 즐거운 작업입니다.  
아주 특별한 책을 디자인하는  
아트 북 디자인으로  
'디자인파트너 다음'의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아트북 (화집·작품집) 기획 | 편집 | 디자인 | 제작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95-1(5F) TEL 02\_325\_6260\_1  
FAX 02\_325\_0944 E-mail\_darumman@korea.com

## 패션디자인 출판 원고모집



## 도서출판 굿디자인 패션디자인 전문 출판

〈도서출판 굿디자인〉은 패션디자인 전문출판사로 패션디자인 관련 실용서와 예술서 등을 출판·기획하고 있습니다. ● 보다 간결하고 품격있는 전문서적의 틀을 잡아가고자 하는 ● 이번 기획 취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원고를 모집합니다.

- 패션디자인(패션일러스트) 기초서적 및 실용서, 번역서
- 패션디자인 관련 예술서
- 패션디자인 관련 자비출판

Good design TEL : 02\_322\_7128 FAX : 02\_325\_0944  
E-mail : gooddesign21@hotmail.com